



즉시 배포용: 2017년 11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피용인 근로시간 운용에 관한 새 규정 발표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운용의 공정성과 예측성을, 고용주에게는 융통성을 제공하는 규정

근로자, 변호인, 업계전문가, 업주 등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에 이은 결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근무 시작 바로 몇 시간 전이나 심지어 근무 개시 이후에도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무 일정을 잡거나 취소할 수 있는 일반적인 관행인 “적시 근무(just-in-time)”, “호출(call-in)” 또는 “비상 대기(on-call)” 일정 운용 방식에 대한 규제안을 뉴욕주 노동부(State Labor Department)에서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근로자들은 일하러 가려고 애를 맡기기 위해 허둥대거나 미리 정해 놓은 약속, 수업 또는 중요한 가족 행사 일정 등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이 관행은 소매 분야 및 기타 서비스 분야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근로자들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며 근로자들이 미리 설정한 지출 경비를 사용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결정될 경우, 이러한 일정에 대한 보호 대책이 뉴욕주 전체에 적용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근로자의 권익 측면에서 전국을 선도하는 성과를 이룩했으며, 근면한 모든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서 제출한 이 규정은 노동자를 위한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고용주들에게는 융통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난 9월, 주지사는 Roberta Reardon 노동부 커미셔너와 노동부에 피용인 근로시간 운용 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노동부는 4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근로자와 변호인, 업계전문가, 업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근로자들에게 자기 근무시간에 대한 발언권을 제공함으로써 취약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번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업들은 정상적 업무 운영에 필요한 융통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 규정의 근로자 관련 내용:

- 근무시간 변경 시 14일 전 통지를 기준으로 하고, 긴급 배치 시에는 두 시간치 임금에 해당하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소 네 시간치 임금이었던 기존 출근 수당의 범위를, 근로자에게 언제든지 출근할 수 있도록 대기할 것을 요구하는 비상대기(on-call) 근무와 임박 시점의 취소 및 배치까지로 확대합니다.

이 규정의 고용주 관련 내용:

- 근로자 채용 후 첫 2주간에는 할증 없이 새 근무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없이 근로자 근무조 맞교환과 대체를 허용하고, 악천후 관련 취소는 24 시간 전에만 통지하면 과징금 없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융통성을 제공합니다.
- 전면 금지 또는 명령의 부과가 아니라, 근무 일정 편성/운용에 관한 결정권은 여전히 고용주들에게 있으며, 근무 일정의 예측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외의 준법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 내용 참조: www.labor.ny.gov/schedulingregs

이 입법은 11 월 22 일자 등록부(State Register)에 공시된 후 45 일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hearing@labor.ny.gov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차례 공청회를 통해 고용주와 피용인, 그리고 양측 변호인들의 증언과 진술이 발표되었습니다. 상공업계 변호인들은 융통성이 필요한 업종이 많으며 고용주들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때 그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피용인들이 질환 또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결근 또는 조퇴하는 경우나, 자재 배송 지연, 악천후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근무 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 증언을 진술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근무 일정에 대해 발언권이 없다는 점과 주 단위로 급격히 바뀌는 근무 일정과 그로 인한 불안정한 소득에 맞춰 생계를 꾸려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육아 계획과 생필품 구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근로자들은 자기 근무시간 몇 시간 전까지도 출근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거나, 근무일정이 타의에 의해 갑자기 바뀌는 현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실제로는 훨씬 적은 시간만 일하게 될 것이 뻔한데도, 풀타임 근무 가능 상태이기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부업을 찾는 데 제약이 많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는, 일정 운용의 공정성과 예측성이 개선되면 직원 이직률과 결근율이 줄고 근로자의 애사심이 커지고 직원들에게 보다 균형잡힌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제출한 이 규정은 근로자와 기업 양측의 관심사를 모두 다루고 있으며, 뉴욕주 일터의 일정 운용에 더욱 안정적이고 일관된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각 공청회의 모든 증언 및 동영상은 www.labor.ny.gov/scheduling 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과정의 시작부터, 우리는 일정 수립에 있어 근로자와 고용주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제출된 규정안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이뤄냈습니다. 공청회에 나서 증언해 주신 분들의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관점이 면밀히 고려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저는 뉴욕주 전역에서 근무 일정 운용의 공정성을 장려할 것으로 확신하는 이 규정을 자랑스럽게 발표합니다.”

뉴욕주 소매업자협회(New York State Retail Council) 의장인 Ted Potrikus CE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Reardon 커미셔너는 뉴욕 주민들에게 직업 기회와 근로 일정의 투명성 및 융통성을 제공하면서, 국제 시장에서 뉴욕 소매업자들의 경쟁력과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우리의 공통 목표를 향해 신중히 접근해왔습니다. 이 나라 전역의 여러 지역들은 이 문제에 성급하게 달려들어 조급하게 작성된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고용주들로 하여금 직원들이 현재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정 운용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의 복잡성을 최초로 인식하시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뉴욕주 전체에 일관되고 균일한 정책을 다듬어 내신 Cuomo 주지사님과 Reardon 커미셔너의 노고에 갈채를 보냅니다.”

RWDSU 의 Stuart Appelbaum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상 대기(on-call) 근무 일정은 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정입니다. 호출을 받아 일하거나 또는 정기적인 임금을 받아 일하거나의 여부에 상관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중단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근무 일정은 두 번째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의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계속 다니기를 원할 경우, 근무 시간을 알지 못해서 수업에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 주 전역에 만연한 비상대기식(on-call) 일정 운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늘 Cuomo 주지사님께서 내린 조치는 근로자들에게 또 하나의 보호막이 될 것이며 근로자의 생활 및 생계 역량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